

유방확대 목적의 유방 내 자가지방 이식의 부작용

이상달

엠디클리닉



배경

1940-50년대 유방확대술을 목적으로 시도된 유방조직 내에 자가지방 이식술은 1990년대 초반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문제제기로 다시 대중화된 적은 있으나 여러 부작용으로 시술이 극히 제한적이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타 병원에서 유방확대 목적으로 자가지방 이식을 받고 엠디클리닉에 내원한 9예를 대상으로 이학적 소견,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 균 배양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이들 중 보형물 삽입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6예에 대해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결과

연령별 분포는 20대 2예, 30대 3예, 40대 4예였고 평균 연령은 37.5세였다. 지방 주입을 받고 본원에 내원하기까지의 기간은 4개월에서 20개월까지였으며 내원동기는 유방확대가 되지 않은 경우 4예, 유방확대가 되지 않고 유방종괴가 만져진 경우 2예, 압통과 유방종괴가 만져진 경우 1예, 유방농양 1예, 단순 검진 1예였다. 전 예에서 유방확대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유방종괴가 있었던 3예 중 2예는 양쪽 유방에 다발성의 불규칙하고 단단한 종괴가 만져졌고 1예의 경우 압통을 동반한 커다란 종괴가 양쪽에서 하나씩 만져졌다. 유방농양을 주소로 내원한 1예는 15년 전

실리콘으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4개월 전 추가 확대를 위해 부분적인 지방 주입술을 받은 분으로 발열을 동반한 유방의 발적, 부종을 보였고 압통이 심하였다. 유방농양 1예를 제외한 8예에 대해 시행한 유방촬영술 6예에서는 석회화 침착 소견을 보였는데 이 중 2예에서는 양성 소견을 확신할 수 없었다. 초음파 검사상 7예에서 유방실질 내에 다발성 낭종이 관찰되었고 1예의 경우 대흉근 하방에 직경이 각각 우측 50 mm, 좌측 15 mm의 거대한 저에코성 종양이 관찰되었으며 유방농양을 주소로 내원한 1예에서는 보형물 주변에 장애고임이 두드러졌다.

유방농양 1예에 대해 절개 및 배농술 시행하였는데 수술 소견상 실리콘 보형물은 지방 주입과정에서 손상된 듯 하였으며 내용물도 심하게 부패되어 악취가 있었고 피막 내에는 농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균 배양 검사상 *S. epidermidis* 가 검출되어 수술 후 6주간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다. 유방확대의 효과를 보지 못한 7예 중 6예에 대해 보형물 삽입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하였다. 이들 중 종괴가 심하게 만져진 1예에서 유방확대술 시행과 동시에 수술시야 안에서 지방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완전 제거는 하지 못하였고 괴사된 종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수술 후 괴사 지방으로 인한 장애 고임 때문에 배액 수술로 제거하였으나 구형구축 현상이 발생하였고 종괴가 만져진 다른 1예에서도 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 현상이 발생하였다.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나머지 4예는 모양과 촉감이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 중 2예는 수술 후 기존의 지방괴사로 인한 종괴가 만져졌다.

결론

유방에 대한 자가지방 이식술은 지방 괴사로 인한 혹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유방촬영상 석회화 침착소견을 만들어 유방암 검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유방증대 효과가 적어 유방확대술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